

2022 인천 독서대전 프로그램 공모전

6 내 마음, 신인 작가와 책으로 치료하다

⑦ 추진배경 및 목적

- 개인마다 성향과 관심 분야가 달라 어떤 책을 읽으라고 추천하더라도 누군가는 재미있게 받아들이지만, 누군가는 지루하게 받아들임. 즉, 개인마다 책에 대한 취향 차이가 존재
- 개인마다 가진 걱정, 근심, 소망, 희망, 꿈 등이 다양함. 이에 따라 관심 있는 책의 종류가 다름. 하지만, 보편적으로 추천 도서 100권 등 일관화된 기준으로 국민에게 책을 구분 지어 읽을 것을 강조함.
- 스트레스를 운동, 취미활동 등으로 푸는 사람도 있지만, 혼자서 삭히거나 마음 속에 담아두는 경우도 많이 존재함. 또한, 운동과 취미활동을 하더라도 스트레스나 걱정, 근심 등이 확실히 풀리지 않는 경우도 많음. 다만, 이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법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책을 통한 치유는 시행하지 않고 있음.
- 책은 시간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읽을 수 있는 매체로 스트레스나 걱정, 근심 등을 푸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즉, 별다른 비용 지급이나 준비 과정 없이도 편히 책을 읽으면서 자신만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됨. 단, 개인마다 특성, 취향 등도 다양하므로 스트레스와 개인의 특성에 따른 책을 추천해줌으로써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필요함. 물론, 다양한 취미활동이나 병원 상담 등도 마음의 병을 고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이는 시간적 할애는 물론 비용 소모가 들어 많이 피하는 편임.
- 신인 작가는 여러 방법을 통해 등용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과 만날 기회는 적거나 거의 없어 어느 정도의 선호가 없이는 책을 출간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더군다나 매년 신인 작가가 발탁되지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그들이 책을 매개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책을 처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함.
- 따라서, ‘책’을 통해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면 함. 책에 대해 다복한 지식을 가진 사람(신인 작가, 도서관 서사, 도서관 직원 등)이 마치 의사가 되어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에게 책을 처방해주는 것임. 다만, 처방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민거리에 대해 같이 이야기도 나누며 대처방안을 제시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함.
- 타시도에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은 보지 못하였음.

⑧ 제안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 대상

- 독서대전에 참여하는 국민 중 마음의 병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책을 처방받고 소통하고 싶은 국민 (단, 국민마다 선호하는 책의 취향은 다양함)
-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부터 시작해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을 겪는 국민까지 아우름. (질병 예방 차원부터 시작해 질병을 실질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국민 등)

○ 소요예산

- 국민으로서는 마음의 병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여러 조언을 얻고 책을 처방받는 것으로 결론은 비용이 소모되지 않음. 다만, 책은 대부분 도서관에 존재하는 것을 처방해준다면 비용이 소모되지 않음.

- 신인 작가가 도서관에 방문하여 국민과 소통하기까지 교통비, 식비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이에 따른 비용은 최소 인당 20,000원 ~ 40,000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함.
- 도서관에서는 기존의 책을 대여해주면 되므로 비용이 드는 부분이 전혀 없음. 다만, 수요가 많은 책의 경우 구매할 수도 있음. 이는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쌓이면 시작해도 늦지 않음. 따라서, 초기 비용 소요예산은 전혀 없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비용은 선호도가 높은 책 구매 예산 정도만 필요할 것으로 예상함.

○ 추진절차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방안

- 인천 독서대전에서 일명 ‘책’을 통해 마음의 병을 고친다는 명칭을 부여함.
- 프로그램의 취지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마음의 병(우울증, 스트레스, 불안) 등을 갖는 국민의 정서 안정을 위한 책 처방으로 기재하고, 참여방법은 대표 도서관 몇 곳을 정해 도서관 사서나 임직원 등과 걱정, 고민거리를 이야기하며 조언이나 위안 등을 얻고 실제 경험과 유사하거나 극복한 사례의 책 등을 추천해주는 것으로 종료함.
- 다만, 도서관 사서나 임직원 등뿐만이 아니라 신인 작가 등도 국민과 만남을 자유롭게 할 기회가 많지 않기에 이번 독서대전을 통해 참여할 신인 작가 등을 따로 뽑는 것도 추천함. 이는 사전에 프로그램 진행을 공지하지 않으면 신인 작가가 알 수 없어 참여할 기회를 놓칠 문제가 있으므로 미리 인천시 공식 홈페이지나 도서관 홈페이지 및 각종 포스터, 홍보물 등을 통해 안내해주는 것이 필요함. 이처럼 신인 작가가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기존 어떤 독서대전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부분이라 생각함. 신인 작가 역시 작가가 되기까지 많은 고생을 해왔을 것이라 예상되므로 국민과 걱정, 고민거리를 소통하는 데 큰 무리는 없어 보임. 또한, 자신의 발간한 책 등을 처방해줄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수적인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함.
- 다만, 신인 작가의 경우 추천해주는 책 종류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도서관 내에 존재하지 않는 책을 추천해줄 수도 있음. 따라서, 위에서도 적어 듯이 대표 도서관을 정할 때 공식 홈페이지가 존재하고 ‘자료검색’이 갖춰져 있는 도서관을 선정하면 좋을 듯함. 대표적으로 미추홀도서관, 주안도서관, 연수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위주에서 시행하면 어떨까 함. 이 공공도서관 등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 마련뿐만이 아니라 자료검색(도서검색)이 함께 이뤄지고 있어 신인 작가가 책을 처방(추천)함에서 훨씬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 국민에 따라 처방받은 책을 대여하여 읽기도 하고 직접 도서관 내에서 읽기도 할 수 있음. 이에 따른 후기, 경험담은 다음 인천 독서대전 참여자에게 호기심을 이끌기 충분하며 평상시 국민에게도 도서관을 홍보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처방 후기’ 게시판을 네이버 폼 등을 통해 만들어 참여한 국민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국민의 만족도 조사 등에도 활용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다음 연도의 독서대전에 한층 개선된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을 듯함. 더불어, 네이버 폼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 중 진정성이 느껴지거나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따로 가공과 수정을 하여 독서대전 안내에 활용하면 많은 국민이 참여할 것임.

⑨ 기대효과

- 책을 통한 시민의 건강한 마음가짐 제고로 독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물론 스트레스, 마음의 병 등을 고치는데 활용할 수 있음. 이는 결국 도서관 활용 증진에도 이바지하여 독서를 하나의 취미로 여기는 시민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함.
- 신인 작가가 시민과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책도 처방해주면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음. 즉, 작가에 관한 관심 증대는 물론 작가 스스로 자신의 경험에 시민의 이야기를 덧붙여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소재를 만들 수 있음.
- 각종 처방 후기 등을 통해 인천시민만이 아니라 국민 역시 마음의 병, 고민 등에 대해 소통하며 책을 처방받는 것에 관심과 호기심을 갖게 됨. 즉, 인천을 대표할 새로운 이미지 형성은 물론 책, 독서 등에 대한 인천에 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
- 기존에 여러 정신건강으로 병원만 전전긍긍하던 시민들 역시 책이란 새로운 소재를 부수적 활동 수단으로 삼아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책으로 소통하며 치유를 받는 공간을 마련함.
- 시민이 독서라는 것이 결코 지루하고 자신과는 다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대표하여 이야기하고 새로운 삶의 목표, 마음의 방향을 설정하는 등에 도움을 주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책에 관한 관심 증가는 물론 스스로 자료검색도 해보면서 도서관 이용률 증진으로 이어짐.